

대학입학제도와 사교육

신 순 용 |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운영위원장

학교교육이 본래의 목표, 즉 지·덕·체의 균형발달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사교육 의존도는 낮아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의 재교육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교사들의 근무조건을 대폭 개선하여 학습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더 나아가 대학원 교육지원과 지속적인 연수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질 높은 교과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I. 들어가는 말

2002학년도부터 적용된 현 대학입학제도는 학생부성적과 활동이 뛰어나며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을 수능성적과 관계 없이 혹은 수능성적이 일정한 등급만 유지하면 선발하는 '수시전형'과 한 가지 방면에 뛰어난 자질과 수상경력을 가진 학생들에게 입학시 많은 특혜를 주는 '대학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외형적으로 수능성적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던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고 보여지며, 대학들이 인재선발을 위해 자체적으로 전형방법을 발굴, 연구함으로써 다양한 대학입학제도의 발전을 지향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실제로 학교현장의 교사들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현실은 어떠한가? 다양성을 강조한 새 대학입학제도의 변화가 사교육시장의 양적팽창의 큰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중산층 가계에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이에 근본적인 사교육팽창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사회풍토 이외에 사교육을 부추긴다고 지적되는 현 대학입학제도와와의 관련성을 생각해 보고, 다양한 학습 콘텐츠와 마케팅 전략을 통해 계속 상승하는 공룡 사교육시장의 현실에서 더욱 위축되고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공교육의 위상을 높이고 그 존립가치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혹은 어떻게 사교육을 공교육의 보완체제로 흡수할 수 있는가에 대해 학부모의 시각으로 한번 짚어보고자 한다.

Ⅱ. 현 대입학입학제도와 관련한 사교육팽창의 근거가 되는 요인

1.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에 갈 수 있다?

2002학년도부터 적용된 새 대학입학제도의 주요 골자 중에 가장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었던 내용이다. 그러나 현재 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 중에서 아직도 이 말을 끝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새 대학입학제도하에서 소질과 적성을 반영하는 특별전형이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교과 영역을 소홀히 하거나, 한 과목만 잘하고 다른 과목을 등한시하고서 대학입학에 성공한 사례가 극히 적기 때문이다. 특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해도 최소한의 수능성적과 학생부성적은 필수적이다. 새 대학입학제도 시행 초기에 이러한 모험을 선택하여 엄청난 사교육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학입학에서 실패한 학생의 경우를 종종 듣는다.

결국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에 간다는 말은 '사교육을 통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창조해냈다. 즉 많은 학생들이 영어(토플, 토익, 텡스), 수학, 과학 등 교과 경시대회와 컴퓨터 경진대회를 선택하고 매달렸다. 달라진 대학입학제도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을 단번에 끌기엔 충분했지만, 학교교육이 충당해 줄 수 없는 특정 교과목의 심화는 역시 학부모들이 스스로 알아서 챙겨야 하는 몫이었고 발 빠른 사교육시장은 여기에 부응하여 엄청난 콘텐츠를 만들어 학부모들의 수요와 관심을 채워 나갔다. 특히 영어학원의 팽창은 가히 숫자와 내용면에서 기하급수적이어서 영어유치원부터 SAT학원까지 크게 성행

하게 되었고, 외국으로 유학이 있었던 학생들까지 여름방학 때 귀국해서 SAT를 준비할 수 있게끔 되었다.

한 과목만 과고들어 경시대회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많았지만 대학 주축나 전국대회의 입상자들은 소수로 한정되어 있었으니, 내신 관리에도 경시대회 준비에도 실패한 학생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역기능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경시대회가 상업적으로 변질되어 질 저하와 난립으로 이어졌고 각 대학에서 그 공신력과 가치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관 주도하에 마침내 새로운 학력경시대회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까지 제기되었다.

2. 수시모집의 확대

수시모집의 확대는 두 가지의 커다란 병폐를 낳았다. 학부모들의 잘못된 학교 참여와 내신 부풀리기로 인한 공교육의 실추된 모습과 공신력 하락이 그것이다. 내신성적이 전형의 중요한 부분인 수시모집은 처음부터 중상위권 학생들에게 유리한 제도였다. 때문에 시행 초기부터 많은 학부모들은 수시전형을 염두에 두고 내신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잘 관리해 주기로 소문난 고등학교 진학을 결정하기도 했는데, 이는 아직도 수행평가를 포함하는 내신 관리에 학부모들의 바지, 치맛바람이 통할 수 있고 교사들의 재량이 많다는 의미이다. 지역교육발전이나 민주적인 학교 공동체 형성이라는 순수한 교육적 목적이 아니라 자녀의 대학입학에 특별한 도움이 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일에 기꺼이 참여하는 학부모들도 의외로 많다. 그로 인해 7년차를 맞이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본래의 목적과 취지가 변질되어

지난 시절의 육성회가 보여 주었던 비리나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들 때문에 다른 학부모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예도 비일비재하다. 이는 실력보다는 눈치가 대학입학에 유리하다는 사회분위기를 반영한다.

새로운 대학입학제도에서는 수시모집이 늘어나면서 학생부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2004학년도에는 199개 학교에서 총 373,884명을, 즉 입학생의 38.4%를 수시모집으로 뽑았다. 2005학년도에는 44%로 늘린다는 발표가 있었다. 수시모집은 학생부성적이 70%, 면접구술고사가 30% 정도 차지한다. 이는 학생부 성적이 좋지 못하면 수시모집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한다는 얘기가 된다. 다만 정시모집에서는 서울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2003, 2004학년도와 마찬가지로 학생부 실질 반영비율이 적고 평어를 적용하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영향력이 적다고 본다.

수시모집의 확대에 인한 학부모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특목고와 비평준화 지역의 우수고교, 및 강남의 일부 사립고 학부모들의 불만이다. 우수한 학생들이 편중되어 있는 학교에서 3년 내내 서울대가 요구, 반영하는 각 교과와 석차를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제 각 과목 배분율이 아니라 석차를 적용함에 따라 등급조정과 함께 다소 격차가 완화된다고 하

나 여전히 비중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수시모집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상대적으로 학생부 반영비율이 낮은 정시모집만을 고려한다. 정시 2차 전형에서도 역시 내신이 당락을 결정하므로 특목고나 비평준화 우수고교의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기도 한다. 결국 그들이 대부분 평어로 내신을 반영하는 연·고대에 지망, 합격하는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현 제도에 불만이 많은 학부모들은 지금의 입시제도가 '같은 조건에서 평등하게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한다. 그리하여 특목고와 비평준화 우수고교의 교사들과 학생, 학부모들은 내신 반영시 학교실력 차를 인정하는 고교등급제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8학군 고등학교와 특목고의 1등급이 소도시나 시골 고등학교의 1등급과 같은 실

새 대학입학제도는 내신 불이익으로 인한 일부 학부모들의 불만을 야기시킴과 동시에 학교등급제 필요성의 논란을 불러왔다. 수시모집의 확대는 분명 교육현장이나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학생선발방식으로 환영받기보다는, 대학이나 일선고등학교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불완전한 제도라는 인식이 강하다. 1학기 수시모집의 폐지는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력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는가의 반영이다. 또한 2학기 수시모집에서 일정한 수능 등급을 요구하는 것처럼 1학기 수시 모집에 합격한 학생에게도 역시 일정한 수능 등급을 요구하여 그것에 미달한 학생은 합격을 취소하며 그만큼의 모집비율을 정시로 전환하거나, 아예 1학기 수시를 없애자는 요구가 힘을 받고 있다.

본래 수시전형을 확대한 목적은 각 대학에서 좋은 학생부성과 활동이 인정되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우수한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입도선매하겠다는 것이지만 실제로 수시를 통

해서 선발된 학생들이 각 대학에서 만족할 만한 그러한 목적과 취지에 맞는 훌륭한 인재들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서울대학교는 수시모집의 확대로 최고의 인재선발과 양성의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자조하는 교사와 학부모들이 적지 않다. 이는 각 대학에서 실력 하향화를 염려하는 목소리와 같은 맥락이다. 특히 이공계 학생들의 수학, 과학 실력이 형편 없이 낮아져서 전공과목 수업 진행에 차질이 있다는 교수들의 불만이 많고, 최근 뉴스에서도 서울대 이공계 학생 150여 명이 수학, 과학 등 기초과목에서 낙제를 했다는 보도를 접하였다.

또다른 문제는 현재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내신문제를 너무나 쉽게 출제하여 100점인 학급에 수십 명이 나오게 만들거나 최상위권 학생들이 수시모집에 유리하도록, 그 밖의 학생들도 대부분 교과에서 '수'나 '우'가 나오도록 학교에서 빙투기하고 관리를 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과연 그런 진위를 의심받고 있는 내신이 대학선발의 중요한 기준으로서 합당한지의 여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내신이란 것은 학교마다 지역마다 난이도가 천차만별이고, 우수한 학생이 많은 학교에서는 모두가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내신성적 차이가 너무 근소할 수밖에 없고 한 교과에서 한 개만 틀려도 전체 석차가 50등을 넘어가는 사례가 다반사이다. 종합적인 사고력을 어느 정도 요하는 수능 평가에서는 30~40점 정도까지 낮은 학생들이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학교에 진학하여 학교의 일정한 내신 보호관리뿐 아니라 그들에게 유리한 대학입학제도의 덕으로 대학진학에서 엄청난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고 격분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여기에서 기

인한다. 결국 일부 학부모는 내신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자퇴나 평준화 지역으로의 전학과 같은 결단을 내리기도 한다.

둘째,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의 학부모들의 반응이다. 그들은 새 대학입학제도의 수혜자들로서 수시모집 확대를 반기는 분위기이다. 수능성적은 다른 특목고나 비평준화 지역의 우수고교 학생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내신 관리에만 꾸준히 신경 써서 최상위 전교 석차를 유지하면 서울대나 기타 명문대를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이다. 1학기 수시에 합격하면 그 뒤의 내신과 수능의 부담에서 완전히 면죄되고 2학기에 합격하더라도 수능에서 일정 등급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다.

3. 고등학교 4년생을 양산하는 제도 - 재수생이 유리한 수능문제 유형

여전히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많은 양의 지식을 받아들여 저장하고, 쏟아낼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학교공부보다 학원수강이나 과외 활동에 더 매달리고 있는 현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수능의 문제유형은 문제풀이 중심의 반복학습으로 인한 성적 향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경험의 학생이 유리하다. 다시 말해 재수생이나 검정고시 출신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내신과 수능, 그 밖의 학교생활 등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야 하는 재학생에 비해 재수생은 오로지 수능공부에만 매달릴 수 있기 때문에 수능점수 상승이 가능하다. 최근 교육 관련 연구소가 발표하는 보고서의

대부분도 현재 매년 증가하는 사교육이 대학 입학제도에의 적응력을 높이고 있으며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중산층 이상의 계층고착화현상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또한 내신 반영의 불리함이 재수, 삼수를 부추기기도 한다. 비교내신제를 성균관대와 서강대는 재수생, 서울대와 연세대는 삼수생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수능점수는 잘 나오지만 학생부성적이 좋지 않은 상위권학생들이 재수, 삼수를 할 수 밖에 실정이다.

4. 심층면접

새 대학입학제도는 과거의 논술고사를 대신하여 수시와 정시모집에서 심층면접이라는 평가방법을 도입했다. 또한 수시전형 구술면

접도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평가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실제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 깊이 있게 다루어 보지 않은 혹은 동떨어진 내용이 출제되는 빈도가 높다.

학생들은 이제 교과서 중심의 내신 관리 따로,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수능 준비 따로, 구술로 실시되는 교과 심층면접 준비까지 적어도 세 가지 다른 유형의 평가를 준비하여야만 한다. 그것은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량을 뜻함과 동시에 학부모들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사교육시장의 변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일부 교사의 지적과 같이, 각 대학에서 심층면접 때 나온 질문내용을 보면 전공 대학생들도 답변하기 힘든 전문적인 교과내용이 출제된 것을 볼 수 있다.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학기 중에 별도로 학원에 다녀야만 하고 정시준비 학생들은 수능이 끝나기 무섭게 또 논술이나 심층면접 준비를 해 주는 학원의 문을

두드려야만 한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그 많은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준비해 줄 만한 자료와 방법, 교사들이 부족할 뿐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 스스로도 고민하지 않고 만능 해결사라도 된 듯한 과대광고에 현혹되어 손쉽게 학원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비용과 효과면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1~2개월 준비에 2~3백만 원

수능의 문제유형은 문제풀이 중심의 반복학습으로 인한 성적 향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 경험의 학생이 유리하다. 다시 말해 재수생이나 검정고시 출신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내신과 수능, 그 밖의 학교생활 등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야 하는 재학생에 비해 재수생은 오로지 수능공부에만 매달릴 수 있기 때문에 수능점수 상승이 가능하다.

이 지출되어야 하지만 한 강의실에 20~3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 테스트가 요구하는 학습의 질은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육적 성과나 효율성보다는 현 제도가 부른 어쩔 수 없는 지출이고 틀에 박힌 준비과정인 것이다.

5. 자주 바뀌는 대학입학제도 그리고 진학정보, 진학지도의 부재

이미 2002학년도 대입 이후 일선학교는 학원이 만든 배치표와 입시자료가 없으면 개별

지도할 수 없는 형편이다. 갈수록 대학입학 제도가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2005학년도 대입은 원하는 과목만, 잘하는 과목만 반영하여 선택 여하에 따라 유·불리 현상이 확연히 나타날 수 있는데도 대학들조차 표준점수가 도입되는 데 따른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오래 전부터 입시학원들은 복잡한 전형내용을 미끼로 한 설명회를 열고 학원상담과 심화 선행학습을 강권하고 있다. 대학입학제도가 수정될 때마다 그 내용에 무지한 학부모들의 불안한 심정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05학년도부터는 수능이 어려워져서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믿고 있으니 사교육의 의존도가 더 높아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교사들의 불만도 상당하다. 1년 내내 학교에서 수시전형 준비에 매달려야 할 뿐 아니라 전형 방법과 시기가 학교마다 달라 학생과 교사 모두 매우 혼란스럽다는 얘기다. 전형은 5~10년마다 일정한 패턴이 있어야 진학지도에 편리한데, 너무 잦은 변동으로 교사조차 충실한 가이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Ⅲ. 대학입학에서의 사교육 의존도 축소 방안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학벌위주 풍토와 취업구조가 개혁되지 않는 한 치열한 입시경쟁은 계속될 것이다. 다시 말해 대학입학제도 자체의 변경 혹은 수정으로 대학입시에서의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수는 없다는 것이다. 고액 과외나 지나친 학원교습의 원인을 모두 입시

제도에 두고 민원 해결성으로 매번 입시제도의 내용과 형식을 바꾸는 등 입시정책의 잦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뿐, 그 대책들의 효과는 미미하고 또다른 부수적인 문제를 야기시켜 왔다.

1. 공교육의 정상화

학교교육이 본래의 목표, 즉 지·덕·체의 균형발달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사교육 의존도는 낮아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의 재교육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학생들이 학교선생님보다 학원선생님을 더 높이 평가하는 풍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교사들의 근무조건을 대폭 개선하여 학습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더 나아가 대학원 교육지원과 지속적인 연수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질 높은 교과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 동료교사 및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사평가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재신임의 도구로 활용할 뿐 아니라 교사를 교육전문가로 인식함으로써 그 책무성을 강화하여야 할 때이다. 평생을 보장받는 자격증이 오히려 교사들로 하여금 노력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는 타성에 젖게 하였고, 재교육을 위한 동기 부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진학지도에 있어서도 학원교사들의 영향력을 줄이고 학원의 도움 없이도 가정에서 대입요강을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책자나 인터넷을 통해 대학별 수능 적용방법을 널리 알리고, 입시와 관련된 문의와 답변이 항상 가능하도록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고등학교와 교육청간, 대학과 고등

학교간의 통로역할과 상담기능을 강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대입지원서 내신성적 산출프로그램을 교육청이 공동으로 만들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 직영의 내신산출서비스체계가 없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방과 후 교과교육 프로그램과 야간 자율학습의 효율적인 운영도 방과 후 무작정 학원으로 향하는 학생들의 발길을 줄이고 학생 스스로 주도적인 학습태도를 가지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학습자의 개인차에 대응하는 운영마인드와 사교육이 가진 철저한 관리방법으로, 저렴하면서도 질이 보장되는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이 운영된다면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 야간 자율학습

의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정착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 별도 공간의 확충(독서실화 된 안락한 시설), 학부모들의 자원봉사 의지, 교사들의 장학지도 열의, 교육당국의 지원(별도 시설확충과 교사들의 수당)에 달려 있다. 지금처럼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학교의 반 강제적인 운영과 교사들의 월급 외 수입과 관련한 과도한 불법 학급기금조성이 존재하는 한 교육적으로 올바르게 자리잡기는 어렵다.

덧붙여 학원교습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공부는 밤늦게 학원에서 하고, 학교에서는 부족한 수면시간을 보충하는 행태로는 교육이 올바로 설 수 없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식개혁운동과 동시에 학원의

교육적,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밤 10시 이후의 교습은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2. 조기 진로교육의 정착과 실업고 및 특성화 학교 육성

앞에서 사교육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으로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얘기했지만 그것은 근시안적이고 원론적인 해결책의 제시일 뿐이다. 대학입시에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이유는 과열경쟁 때문이다. 사회에 기여하거나 성공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선택하고 대학, 특히 명문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그 지름길로 인식하는 사람이 절대다수인 것이다. 이는 우리가 이미 인지하는 바와 같이 학벌 중심의 사회구조와

조기의 올바른 진로교육을 통해
여러 방면의 실업고나 특성화학교로
많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진학한다면
대학입시에서의 과열경쟁과
사교육 의존도도 자연스럽게
조절될 수 있다고 본다.

바람직한 진로교육의 부족에 원인이 있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처럼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사회의 다양한 구조 및 직업에 대해 교육하고, 중학교에서는 지속적으로 폭넓고 깊이 있는 진로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졸업 후 실업고, 대안학교 및 특성화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

현재 인문계학교에서 진로탐방교육이 있기는 하나 교육시기가 너무 늦고,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나 효과가 없다. 공부에 취미나 특별한 능력이 없는 많은 학생들이 뚜렷한 목표의식 없이 사회와 부모의 요구에 못 이겨 너도나도 인문계학교에 진학해서 대학입학을 유일한 목표로 씌름한다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인력낭

비 및 경제적 손실일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훌륭한 인재양성의 기회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재 이공계 기피 현상이 보여 주듯이, 역사적으로 우리는 문(文)을 무(武)나 기술(技術)보다 우월하게 여겨 장인정신 교육의 부재를, 더 나아가 기술자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풍조를 만들어 온 것이다. 그 결과로 지금 대학 졸업생들의 실업률이 얼마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가? 이제 대학 졸업장이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 시대는 지났다.

조기의 올바른 진로교육을 통해 여러 방면의 실업고나 특성화학교로 많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진학한다면 대학입시에서의 과열경쟁과 사교육의 존도도 자연스럽게 조절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실업고 지원정책이나 육성방안으로는 그와 같은 분산은 기대하기 어렵다.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 진학을 유도하고, 졸업 후 취업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고 더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관련 전문대학으로 연계, 진학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특전이 계속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3. 인문계학교의 진학준비 과정

대다수 학부모들은 중등교육을 대학입시를 위한 준비단계로만 인식한다. 이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많은 학부모들의 이해가 부

족하고, 모든 사회적·경제적 경쟁이 교육 경쟁으로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대학입학제도의 개선을 통해 당장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대학 전형방식의 다양화로 교육의 전 과정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선회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 같다. 따라서 학교간, 학생간의 학력차이를 인정하고, 교과성적과 교과 외 전

체 활동에 대한 상세 하면서도 과학적인 학 생기록명세서의 자료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그리하여 입학 전형시에 어떤 자료보다 공신력있고 합리적인 자료로서 인정되고 적용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등학교 2학년까지 중등교육에 필요한 모든 교육과정을 마치고, 고등학교 3학년은 '대학진학준비과

정'으로 규정하여 대학입학전형 요소와 방식에 따라 특별 교육과정과 수업방법을 택하고 진학준비와 지도까지 학교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재학생들이 유리한 시간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재수라는 필수과정이 축소되어 소모적인 시간낭비와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4. 저비용의 온라인 보충학습체계 구축

사교육이 교육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현

현재 우리의 사교육은 그 투자비용에 비해 교육적 효율성은 그다지 높다고 할 수가 없다. 사교육의 교육적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근거 없는 신뢰의 허상을 정확하게 깨우쳐 주는 지속적인 교육 캠페인과 유익하고 바람직한 교육정보를 제공하는 학부모아카데미의 운영이 필요하며, 교육소비자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실이라면 대립이 아니라 보완과 공존을 통해 내용과 질의 향상을 교육인적자원부가 유도할 수는 없는가? 최근 온라인교육방식을 도입하여 양질의 콘텐츠와 탄탄한 인프라를 통해 교육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사교육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과외의 학습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낮은 사용료와 편리한 접속을 통해 유명한 학원 강사의 강의를 지방에서까지 듣고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가계 부담의 경감과 교육의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데 다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요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질 높은 온라인평생교육과 중·고등학생용 학습컨텐츠 구축을 위한 예산지원은 사교육비 경감과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차원에서도 좋은 본보기가 된다 하겠다.

IV. 맺는 말

새 대학입학제도는 내신 불이익으로 인한 일부 학부모들의 불만을 야기시킴과 동시에 학교등급제 필요성의 논란을 불러왔다. 수시모집의 확대는 분명 교육현장이나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학생선발방식으로 환영받기보다는, 대학이나 일선고등학교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불완전한 제도라는 인식이 강하다. 1학기 수

시모집의 폐지는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자주 바뀌는 대학입학제도도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에 편승한 입시학원들의 상술(商術)에 날개를 달아 주어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현재 우리의 사교육은 그 투자비용에 비해 교육적 효율성은 그다지 높다고 할 수가 없다. 자신감과 학습의욕이 떨어진 자녀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과 통제능력의 상실을 지나치게 사교육에 의존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사교육의 교육적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근거 없는 신뢰의 허상을 정확하게 깨우쳐 주는 지속적인 교육 캠페인과 유익하고 바람직한 교육정보를 제공하는 학부모아카데미의 운영이 필요하며, 교육소비자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민학**

신소용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분당 이매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장, 분당지역 중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장,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성남·분당지부 부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중앙 운영위원장, KBS시청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